

고린도전서 4장

성경 속으로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을 펴실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그는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여기에 일군이란 단어는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은 배 밑바닥에서 노 젓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사용했던 옛날 배들의 맨 아래층에는 노 젓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의 밑바닥에서 노 젓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배가 가지 않을 때 그들은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를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노예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맡은 자(청지기)란 집안 일을 맡아 관리하는 종을 말했습니다. 청구서를 지불하고, 식량을 주문하며, 다른 종들이 그들의 일을 했는지를 검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이제 성령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맨 아래에서 노 젓는 자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분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청지기)로서의 첫째 요구 조건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물건들을 관리하는데 신실한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청지기 직분과, 맡겨진 일들을 잘 관리한 선한 청지기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또한 충성되지 못한 청지기들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그들은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지 못했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되어야 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3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바울이 말하길)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이 한 지역을 떠나면, 거기에는 항상 바울이 사역한 뒤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화 자들로, 와서는 말하길, 바울의 은혜의 메시지가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며 배교자이고, 그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율법은 매우 중요하여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헐뜯고 중상하므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술책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자신의 자리를 확립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자리잡게 할 단 하나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다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헐뜯고 중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가져다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 생각하기를 여기 내 자신의 자리를 확립해야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거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역자에게 매우 애착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보같이 그 전 목사를 낮추고 헐뜯으면 그들 자신이 높아지는 것같이 생각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들을 더 훌륭하게 여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요, 나는 아볼로에게요, 나는 베드로에게요 라며 나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고 당신의 삶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거나,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을 대항하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당신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단에 속해 있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있는 몇 명의 십대 남자아이들을 성회롱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목사가 시무했던 교회를 말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그 곳의 보안관은 그 목사에게 그 지역을 떠난다면 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보안관을 그 목사에게 떠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사는 그 교회를 개척하여 13년 간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특히 그 목사와 성적으로 관련되었던 아이들의 가족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들어가는 것, 특히 그 목사를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그 목사가 그러한 일을 하리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그 목사에게 엄청난 충성심이 그들 마음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저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역하려면 저들의 마음에 나의 자리를 만들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목사를 헐뜯지도 아니하고, 그 목사가 저지른 죄를 들추어내지도 아니하고, 그저 들어가 저들에게 사역하였습니다. 그 목사에게 충성을 다 했던 사람들이 와서는 그 목사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분을 선생으로서 크게 존경했음을 말했습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었으며, 그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적인 언사를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에 그 목사의 자리가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그 목사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헌아 하셨고, 또 그들의 성장한 자녀들의 결혼을 집례했으며, 그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였었고, 그는 13년 간 그들에게 사역했습니다. 사실 그들과 가깝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13년 간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매우 가까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이는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십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목사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 목사를 모욕하려 하지 않고 다만 그들의 마음과 삶에 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사역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는 헌팅톤 비치 시에서 수년간 사역을 했었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후임자로 왔던 목사는 사람들이, 척 목사가 이것을 했고 저것도 했으며 여기에 교회를 개조하는 것을 도왔다고 했기 때문에 매우 질투를 했습니다. 그 후임 목사는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 목사는 나에게 대해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리 낮추므로 나의 위치를 세우려 해서는 안됩니다. 그저 들어가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의 자리를 세우고 사역을 해나가십시오.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들로 인해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며, 그것으로 방해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이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4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너희가 나를 판단하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노라. 나는 나를 자책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노라.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에게 대해 자책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자책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회원으로서의 자신의 그전 삶을 이야기 할 때, 나는 율법으로 의로워 지려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진술입니다. 바울은 특이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자책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노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므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대한 어떠한 죄의 고발이 있다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두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자로서의 주님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5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나니, 그 때가 오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동안에 행한 것들 대해 보응을 받기 위해 설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심판 받게 될 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 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공력이 불에 견디면 그들의 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은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참된 심판자이신 주께서 오시는 날, 모든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거나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거나 드러내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컴퓨터는 흥미로운 물건입니다. 컴퓨터로 들어가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컴퓨터로 한 모든 전화들이 기록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전화 통화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컴퓨터 안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포르노 같은 것에 다이얼을 돌린다면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지고 컴퓨터에

보관되어집니다. 컴퓨터 기인들도 따라 들어가 서류를 입수할 수 있고, 당신이 통화한 모든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정하겠지만, 여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기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책들이 퍼지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되리라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컴퓨터 보다 기록들을 더 잘 보관하십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거나 나타내질 것입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심판하시러 오실 때는 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들에 대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6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그 본들은, 우리가 농부이거나, 건축가이거나, 일꾼이거나, 청지기요이다. 바울이 본으로 사용하는 농부나 청지기들은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터 위에 세우는 건물을 귀중한 금속이거나 보석들로 짓거나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나는 바울에게요, 나는 아볼로에게요 라하며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었도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쓰는 것은 너희가 한 사람에게 애착을 갖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해지거나 목소리를 높여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칼빈주의니 알매니안주의니 하며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학문의 결핍과 쓸데없는 것들로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당신이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그것에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하며, 모두 교만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은 슬픈 일이지만 오늘날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묶여 일치될 찾기보다는 줄을 그어놓고 너는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며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협한 신앙으로 다른 면을 볼 수 없음은 참으로 슬프고도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교만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7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만약 나에게 어떤 귀한 것이나 재능, 은사, 지식 또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매우 잘하거나 아주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만해져서,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이런 저런 능력을 가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내가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당신의 것인양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빈정대듯 말합니다. **8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이것은 일종의 그들 자신에 대한 그들의 견해입니다.) -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는 부자이고, 배부르며, 왕노릇 하는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너희가 통치하게 되고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9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 (또는 밑바닥에, 배 아래서 노 젓는 자들)에 두셨으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라고 부르신 것과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기로 정해진 것과 같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를 폭스의 순교자들의 책이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서 공부해 보면, 폭스는 유세비우스로부터 그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초대 사도들을 공부해 보면,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멧은 곤봉으로 때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멧은 불에 타 죽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목이 잘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당나귀에 매달려 그들의 뇌가 도로에 터져 나오기까지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참혹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참혹한 순교의 죽음을 피한 사람은 단 한사람, 사랑하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로 부름 받는 것은 죽기로 작정된 것과 같이 때문에 우리 사도들은 가장 낮은 미말에 두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의 여흥거리로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으로 먹여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경거리요, 여흥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0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저(Caesar)는 주(Lord)라” 선언하으로서 시저에게 충성을 표하지 아니하는 것은 로마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저를 주로 선언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계속 주장하며, 시저가 주라는 말을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불행히도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그들로 시저가 주라고 선언하기를 강요합니다. 미국에서도 점점 더 이러한 정부의 권위에 굴복하게 하는 경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저를 주라고 선언하도록 굴복하고 복종하게 하는 법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신자들은 그것을 선언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를 선언했기에 그들은 바보처럼 보여졌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너희 고린도인들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련한 자들이나 우리는 그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노라. 우리는 그 분을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것이나 너희는 너희의 안전을 위하여 평화협상 아래 이 세상과 의롭게 살기 위해 타협을 하려는 구나.)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가 우리를 천하게 여기고 너희 자신을 높이는구나)

너희는 존귀하되 (너희의 관점으로) **우리는 비천하여 11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은 반대편에서 그를 대항하는 사람들의 거짓 고발에 대항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낀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치른 댓가들을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치른 댓가와 그가 겪었던 고초들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상당히 긴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다시금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실지로 그가 치른 댓가들을 그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까지도 주리고, 목마르며, 육신적으로 고초를 당하고, 헐벗고, 매 맞았습니다. 그는 거처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는 돌아갈 집도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나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그들에게 값없이 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과 그와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하길,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악의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선하게 하라.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되 바울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핍박을 당한즉 참고: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고 참노라.)

13우리가 미방을 당한즉, 우리는 좋은 말로 달래고, **편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썩기 같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를 미워했습니다. 바울을 미워했던 자들, 그를 헐담하는 자들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바울을 파괴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4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추악하고 흉한 말들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으면서 너희들의 의견을 형성하고 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러한 것들에 대해 너희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이라.

15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니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희들에게 많은 스승들이 와서 그들의 경력들을 말해 주고는, 나를 멸시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왔으며, 너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인도한 사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나의 자녀들이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교리에 유혹되어 빠지게 하는, 이러한 스승들을 모두 갖고 있다할지라도, 너희들은 오직 한 아버지만 갖고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내가 듣기로 이곳 갈보리 채플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다른 이의 가르침은 들으려고 배회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부분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방해가 되지 않지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몇몇 사람들은 돌아와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묻기를, 너희는 어디서 이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갖고 왔는가? 성경을 읽으므로 얻었는가? 라고 하면 그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가 성경만 읽고 결코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비뚤어진 해석을 주었을 것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는 결코 그러한 주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뚜렷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졌으며, 어떤 이가 너에게 그런 방법으로 가르쳤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와와 증인들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은 있지만 지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에 관하여 그들을 속였고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대단한 성실성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들은 항상 말하기를 헬라어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헬라어를 모릅니다! 헬라어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종종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말씀에 대한 그들의 해석들은 너무나 틀립니다! 예수를 천사장 미가엘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려면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말씀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2년간 우리 책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어두움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책을 2년간 읽으면, 당신은 사실 성경이 필요치 않고 당신은 빛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고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교육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진 많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 좀 봐요!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 봐요. 교회에서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옛 농신(農神)을 경축하는 이방인들의 축제날에서 온 것이고, 이방 바벨론에서 숭배했던 것이었어요. 세상에! 교회가 당신을 속여오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들은 계몽되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프게도 어두움 속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기에 나의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그들의 성실함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판매자들로 만들어, 그들을 내 보내어 책들과 잡지들을 팔게하고, 이 사람들을 상품을 판매하는 자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서는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일조를 강요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너희는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 거듭났고,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16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타락하게 할 수 있기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17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말하자면 바울의 사동(使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개인적으로 갈 수 없는 곳으로 디모데를 보내곤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한 자산이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는 동안 개종되었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경우를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쓰면서(빌립보서 2: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가 그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같이 바울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울의 삶의 원리와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확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고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입니다. 디모데가 나의 행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며,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과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방법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18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람들은 바울만 바라보며 그를 비난할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바울은 너무 교만해져서 오지

않고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며, 왜 바울 자신이 오지 않느냐? 고 합니다. 어떤 일든지 결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져서, 부하를 보낸다고 합니다.

19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나는 너희에게로 갈 계획을 하고있다.)

여기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기를(야고보서 4:13-15), 우리는 내일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내일 이것을 하리라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한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열려있고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틀에 박히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해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도록 당신의 프로그램을 꼭 짜지 마십시오.

내가 야구 경기를 했을 때 나는 내야(內野)의 3루에서 뛰었습니다. 나는 유격수와 서로 이야기하면서 타자가 나오면 우리는 대개 긴장을 풀자고 합니다. 그 뜻은 융통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공이 내야수를 통과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든 갈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움직일 준비를 하라! 굳어있지 말라. 만약 거기에 고정되어 굳은 자세로 있다면 공을 항상 수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를 갖고 느긋하면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때 공이 어디로 가든지 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유를 가지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완고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내일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이 전혀 생각지도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 이것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속히 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 볼 것이 아니라(그 텅 빈말) 오직 그 능력을 알아 보겠노니. 20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온갖 헛된 말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헛된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21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은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갈 것인데, 내가 갈 때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은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이 책은 교정 서신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빨리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감동되고 그로 인해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빨리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지로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용하여 상품화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주님과 주님의 일에 있지 않고, 단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을 가장 교묘히 이용하여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쇠도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났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끌어 그들을 쫓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양떼를 탈취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된 목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너희들 중에서 사람들을 끌어 그들 자신을 쫓게 하려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것에 관해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었노라고 합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사역을 이루어 놓으면 바울이 떠나자마자 들어와서 바울의 사역을 파괴하고 그들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끌어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돈을 받지 않으려고 대단히 조심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바울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탈취하며,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자 사람들은 바울에게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유익만을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역의 초기에 우리는 일 년에 한두 번 부흥사를 모시고 영적 부흥을 위한 특별 주간을 갖곤 했습니다. 한번은 전도 집회를 잘 인도한다는 평판이 있는 부흥사를 모셨습니다. 그는 집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연설가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미있는 농담으로 극적이면서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돈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붙여 놓아 사람들이 설탕 등 온갖 것들을 갖고 올 수 있게 했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가 거처하고 있는 집에 갔었는데, 거기서 나는 십 파운드 설탕 자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록에 설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처음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너무나도 새 구두 한 켤레가 필요한 거 아시지요. 주님 제 신발 사이즈가 9.5인 것도 아시지요. 그리고 제가 까만색을 좋아하는 것도 주님 아시지요. 그 다음날 교회에 마음이 따뜻한 성도 한 분이 그에게 까만 구두 한 켤레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와서는, 보세요, 교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셨네! 내가 이 구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께 감사치 말고 가서 그것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도 당연하게 당신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로 잘 알게 했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낡은 전신 녹음기를 갖고 있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부분에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테이프 녹음기가 들어오고 있을 때였고 전신 녹음기는 사라질 때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새 테이프 녹음기를 사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이미 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 교회의 한 장로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장로에게 그의 전신 녹음기를 팔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 장로와 거래를 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그 부속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장로에게 사기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장로에게 전화를 하여 그가 당신에게 팔려는 그 전신 녹음기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며, 그 부속은 구입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 장로는 말하기를 이 젊은 목사가 부흥사가 모든 것에 다 훌륭하니까 질투가 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이 장로에게 경고를 하려는 것뿐이었는데 그는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단지 그 장로가 사려는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임을 경고주기 위함이었었습니다. 후에 그 장로는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입니다. 우리가 우리자신을 거저 줄 때에도, 종종 고맙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사역하는 도시에서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 상담자로서의 자격증을 받기 위해 특정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격증이 있는 카운셀러였기 때문에 한 시간에 50불씩을 가정 상담하는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 어떻게 상담하는데 시간당 50불씩을 받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교환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담을 위해 그들이 한 시간당 50불씩을 내야하면 그들은 그 지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돈을 받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니까 그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언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거기엔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료로 주면 그것을 항상 감사치 않습니다.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거저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들에게로 유혹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충성은 바울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바울과 그의 사역에 증가된 부담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상당히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밤낮 눈물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사역하기 원했고, 온유한 영으로 그들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만하여져서 분열을 만드는 많은 이들을 지적하여 고치려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성숙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주의 것으로 성숙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당신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본모기를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보여준 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과 감사와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